

초등학생의 내·외재적 생애목표와 기본심리욕구 및 안녕감 간의 관계

노 현 중

손 원 숙[†]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생애목표, 기본심리욕구, 안녕감 간의 구조적 관계 및 성별에 따른 차이,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D광역시에 위치한 3개 초등학교의 5, 6학년 학생 418명(남학생 232명, 여학생 186명)이며,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이 적용되었다. 연구 결과 첫째, 기본심리욕구와 안녕감의 하위요인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생애목표와 관련해서는 내재적 생애목표와 외재적 생애목표에서 차별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내재적 생애목표는 기본심리욕구, 안녕감과 대체로 정적인 상관이 있었던 반면 외재적 생애목표는 안녕감과 상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등학생의 생애목표와 안녕감 간의 관계에 대한 구조모형 검증에서 내재적인 생애목표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유능감과 관계성을 매개로 안녕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재적인 생애목표는 기본심리욕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었고, 안녕감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율성은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유능감과 관계성을 매개하여 안녕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 집단 분석을 통하여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내재적 생애목표가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자율성이 유능감, 관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재적인 생애목표는 남학생의 경우에만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초등학생에게 있어서 보다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삶을 위한 내재적 생애목표의 수립과 추구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내·외재적 생애목표, 기본심리욕구, 안녕감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손원숙,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E-mail: wsohn@knu.ac.kr

‘꿈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직장인이라면 연봉과 승진, 사업가라면 매출, 구직자라면 취업이 생존과 관련된 당면과제이기 때문에 ‘꿈’이라고 하면 원대한 포부, 자아실현, 이상향 등을 떠올리기 보다는 돈, 승진, 명예, 안정적인 직업 등을 떠올린다. 이러한 현상은 초등학생들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전교조 경남지부가 2013년 경남지역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921명을 대상으로 가정 및 학교생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학생의 29.3%(270명)가 교사 및 공무원을 장래희망 1순위로 선택했다.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1순위로 교사나 공무원이 선택되는 것은 아이들 자신의 희망이라기보다는 직업선택에 있어서 경제적인 안정성과 사회적 명성에 가치를 둔 부모들의 희망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렇듯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목표를 결정하지 못하고 부모의 압력이나 가치관에 이끌려 생활하게 됨으로써 삶에 대한 만족감이나 안녕감이 떨어지고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며, 나아가 각종 문제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학교적응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아영, 2010; 안도희, 박귀화, 정재우, 2008; Gunnell, Crocker, Mack, Wilson, & Zumbo, 2014; Sheldon, Ryan, Deci, & Kasser, 2004). 따라서 초등학생 시기부터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쌓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목표를 수립하고 추구해 나가는 것은 개인의 삶에 중요한 동기화의 원천으로써 인간 생애의 전 과정을 통해 개인 차원에서 삶의 의미를 탐색하고 행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Emmons, 1996; Headey, 2008) 구성원 각자의

사회적 목적에 따라 공동체 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Damon, Menon, & Bronk, 2003). 또한 목표는 아동·청소년기의 발달과업 측면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애 의미를 생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삶의 가치를 정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신종호, 서은진, 이유경, 2011). 목표에 관한 연구 중에서도 삶의 의미 탐색과 행복추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전 생애 관점에서의 목표 추구에 대한 연구이다. 자기결정성이론의 하위이론인 목표내용이론에서도 전 생애 관점에서의 삶의 목표에 대해 연구하는데, 이는 기본심리욕구의 충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김아영, 2010; Rijavec, Brdar, & Miljković, 2006). 경제적 성공, 권력, 사회적 인정, 신체적 매력 등을 추구하는 외재적인 생애목표는 기본심리욕구 충족이나 안녕감과 부적인 관계가 있고, 자기실현과 같은 개인적 성장과 건강, 활력, 양육적 관계, 공동체 참여 등을 추구하는 내재적인 생애목표는 기본심리욕구 충족, 안녕감과 정적인 관계가 나타난다는 연구(Kasser & Ryan, 1993, 1996)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목표를 갖고 추구하는 것은 삶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역경에 직면해서도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하게 한다(Diener & Fujita, 1995). 이처럼 전 생애 관점에서의 목표에 대한 연구는 올바른 목표수립과 지향을 통한 행복추구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신체적 욕구와 안정의 욕구 다음으로 중요하면서도 가치 있는 일이며(Lyubomirsky, Sheldon, & Schkade, 2005) 인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본성으로 사회·문화적인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행복

과 관련된 변인으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안녕감이다. 안녕감은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행복감 또는 총체적인 감정을 강조하는 용어로(고재홍, 김미정, 2009) 한 개인이 삶의 여러 영역에서 자신의 경험, 성취, 관계의 질 그리고 자신의 기능에 대해 종합하여 삶의 질에 대해 내리는 평가(Diener, Suh, Lucas, & Smith, 1999)라 할 수 있다. 개인의 안녕감에 대한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연구되고 있다. 하나는 쾌락주의적 관점에서의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SWB, Diener et al., 1999)이고, 또 하나는 행복주의적 관점에서의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PWB, Ryff & Keyes, 1995)이다. Keyes(2005)는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을 판단하기 위하여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과 더불어 사회적 안녕감(Social well-being)의 검토를 주장했는데, 이러한 경향에 따라 최근에는 안녕감을 구분하여 보지 않고 상호보완적이며 통합적인 관점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통합적 관점에서의 안녕감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이현주, 이미나, 최인수, 2008; Keyes, 2005). 국내의 안녕감 연구는 초기에 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어린 시절의 행복감이 성인의 행복감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Yang, 2008)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근에는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러 변인들과 함께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재홍 외, 2009; 류정희, 이명자, 2007; 문은식, 2007; 박영아, 2011; 소연희, 2007; 조한익, 2011).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무렵부터 학업 스트레스와 경쟁 등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삶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아 행복감을 경험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으며(신미, 전성희, 유미숙, 2010), 학년이 높

아질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강하므로(김의철, 박영신, 2004) 초등학교 시기에서부터 학생들의 삶의 질과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안녕감을 증진 시키는 변인들로는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기본심리욕구 등이 있다(박영아, 2011; 안도희 외, 2008; 조한익, 2011). 최근에는 기본심리욕구의 충족과 안녕감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안도희 외 2008; 이명희, 김아영, 2008). 기본심리욕구는 인간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속성으로 욕구의 충족은 외부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며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안녕감을 충족시키는 필수적인 요소이다(김주환, 김은주, 홍세희, 2006; 문은식, 2007; 소연희, 2007; Deci & Ryan, 2000; Ryan & Deci, 2000). 또한 기본심리욕구를 만족시키는 사회적 맥락은 내적동기의 발현과 내면화를 촉진하며 인간의 안녕감을 위한 필요조건임이 밝혀졌고(Deci & Ryan, 2000), 내재적 목표를 추구하는 성인들의 주관적 안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asser & Ryan, 1996).

결과적으로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목표를 수립하고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고 안녕감이 증진되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은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전 생애 관점에서의 생애목표가 이들 변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외국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생애목표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활력과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외재적인 생

애목표는 유능감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Rijavec et al., 2006)가 보고되었고, 성인들의 내재적인 목표가 자율동기와 기본심리욕구를 통해 운동능력, 활력,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Gunnell et al., 2014)가 보고되고 있지만 연구대상이 성인이나 대학생으로 한정적이고 다양한 문화권이나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일반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목표내용이론에 기반한 청소년용 생애목표 척도가 개발(김성수, 2013) 되면서 전 생애 관점의 목표추구에 대한 관심이 점차 어린 학생들에게로 확장되고 있고, 최근 진로교육이 강화되면서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교육부, 2012)’에 초등 단계의 성취기준도 제시되고 있다. 이는 진로를 결정하고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이 한 시점의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져야하는 발달과업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고, 전 생애관점의 목표추구가 초등학교 진로교육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진로발달과정상 환상적 직업선택 단계에서 잠정적 직업선택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Ginzberg, 1972)에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로 하여금 전 생애관점에서 어떠한 목표를 수립하고 추구하는 것이 좋은지를 파악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즉, 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자기의 미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추구해 나가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생애목표에 대한 연구가 드물고 특히, 생애목표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학업적 상황에 대해서만 치중되어 있어 삶에 대한 만족감이나 행복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

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내·외재적 생애목표가 기본심리욕구와 안녕감에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관계에 대하여 탐색함으로써 초등학생들의 생애목표, 기본심리욕구, 안녕감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조적인 관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각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차이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생애목표의 경우 남학생은 외재적 목표를, 여학생은 내재적 목표를 추구하는 경향이 다소 높게 나타나며(Rijavec et al., 2006), 기본심리욕구에 있어서는 남성이 자율성을, 여성이 관계성을 더 높게 지각할 수 있다고 하였고(Deci & Ryan, 2000) 유능감 역시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학업적 유능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Vallerand,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생애목표, 기본심리욕구, 안녕감 간의 구조적인 관계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초등학생의 내·외재적 생애목표, 기본심리욕구, 안녕감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 둘째, 초등학생의 내·외재적 생애목표, 기본심리욕구, 안녕감의 구조적인 관계는 어떠한가?
- 셋째, 성별에 따라 생애목표, 기본심리욕구, 안녕감 간의 구조적인 관계에는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D광역시 소재의 3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학생 443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생애목표, 기본심리욕구, 안녕감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문항에 불성실하게 응답하여 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25부를 제외한 418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학년, 성별에 따른 연구대상 분포는 표 1과 같다.

측정도구

생애목표 척도

본 연구에서는 Kasser와 Ryan(2004)이 개발한 미래열망 지수(Aspiration Index: AI)를 최영미(2013)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미래지향목표의 6개 하위요인 즉, 부 지향, 명성 지향, 이미지 지향, 개인성장 지향, 관계 지향, 지역사회 지향을 내재적 생애목표(개인성장, 관계, 지역사회 지향)와 외재적 생애목표(부, 명성, 이미지 지향)의 2개 요인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총 30문항이고, 내재적 생애목표 15문항, 외재적 생애목표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부터 '항상 그렇다(5)'까지 Likert식 5점 척

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자료(n=418)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내재적 생애목표 .90, 외재적 생애목표 .91로 나타났다.

기본심리욕구 척도

기본심리욕구는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의 미니이론 가운데 하나로 유능감에 대한 욕구, 자율성에 대한 욕구, 관계성에 대한 욕구의 세 가지로 욕구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Ryan과 Deci(2002, 2004)가 개발한 '기본심리욕구척도 Basic Psychology Needs Scale : BPNS)'를 토대로 이명희, 김아영(2008)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 및 타당화한 '한국형기본심리욕구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총 18문항이고, 자율성 6문항, 유능감 6문항, 관계성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에서부터 '매우 그렇다(6)'까지 Likert식 6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 자료(n=418)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기본심리욕구 전체는 .88이고,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자율성 .75, 유능감 .76, 관계성 .80으로 나타났다.

안녕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Keys(2005)가 개발한 SWBS (Subjective Well-Being Scale)를 이현주, 이미나, 최인수(2008)가 한국적 상황에 적합하게 번안하고 타당화 과정을 거친 K-SWBA 척도를 사

표 1.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연구대상의 분포(%)

집단구분		남	여	전체
학년	5학년	117(28.0)	101(24.2)	218(52.2)
	6학년	115(27.5)	85(20.3)	200(47.8)
	전체	232(55.5)	186(44.5)	418(100)

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척도로서 총 3개의 하위 영역 즉 사회적 안녕감(5문항), 심리적 안녕감(4문항), 정서적 안녕감(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최근 한 달간 느낀 정도를 전혀(1)에서부터 '매일(6)'까지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Likert식 6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 자료(n=418)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안녕감 전체 .91,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사회적 안녕감 .79, 심리적 안녕감 .71, 정서적 안녕감 .89로 나타났다.

통계적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18.0 및 AMOS 20.0 프로그램을 통하여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구체적인 통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목표, 기본심리욕구, 안녕감의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생애목표와 기본심리욕구 및 안녕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였다. 모형의 평가기준으로 기본적으로 검증을 사용하고, 표본크기에 대한 χ^2 검증의 민감성을 고려하여서 TLI ($\geq .90$), CFI ($\geq .90$), RMSEA ($\leq .08$)를 사용하였다. 또한 생애목표와 안녕감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추정 절차를 사용하였다. 넷째, 성별에 따른 생애목표와 기본심리욕구 및 안녕감 간의 관계구조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잠재평균분석 및 다집단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내·외재적 생애목표가 기본심리욕구를 통하여 안녕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즉, 개인의 내적인 성장과 만족을 추구하는 내재적 생애목표와 물질적인 풍요와 명성을 추구하는 외재적 생애목표는 기본심리욕구를 통하여 안녕감에 차별적인 효과를 가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생애목표 관련 선행연구(Kasser & Ryan, 1993, 1996, 2004; Ryan & Deci, 2000; Sheldon et al., 2004)에 따라 생애목표를 2개의 구인(내재적 생애목표, 외재적 생애목표)로 분리하였고, 다음으로 내·외재적 생애목표, 기본심리욕구, 안녕감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살펴보았다. 내재적인 생애목표와 외재적인 생애목표를 모두 높게 지각하고 있는 집단과 외재적인 생애목표 보다 내재적인 생애목표를 높게 지각하는 집단에서 기본심리욕구 충족을 높게 지각한다는 연구결과(Brdar, Miljković, & Rijavec, 2011)와 내재적인 생애목표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외재적인 생애목표는 유능감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Rijavec et al., 2006)를 바탕으로 내재적인 생애목표는 기본심리욕구의 하위변인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만 외재적인 생애목표는 자율성, 관계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유능감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 중 자율성이 유능감과 관계성에 선행한다는 연구결과(김은주, 2007; deChams, 1968; Ryan & Deci, 2000; Guay, Ratelle, Senecal, Larose, & Deschenes, 2006)를 바탕으로 자율성 \rightarrow 유능감, 자율성 \rightarrow 관계성 경로를 추가하여 매개변인들이 연속적(Serial type)으로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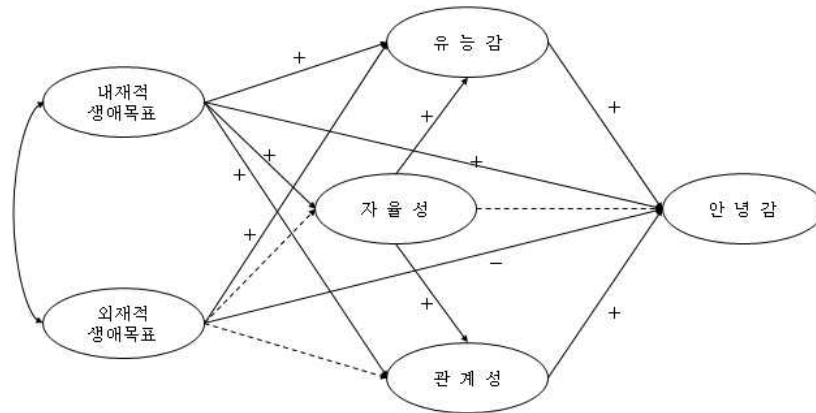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나타냄.

된 이중 매개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본심리욕구의 모든 하위요인은 안녕감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Deci & Ryan, 2000)와는 달리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만족될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낮은 경향이 나타난다는 연구(김아영, 이명희, 2008)와 자율성은 유능감, 관계성과는 달리 긍정적인 정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Gunnell et al., 2014) 등을 종합하여 자율성은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결 과

기술 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수, 평균 및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상관분석 결과, 남·여 집단 모두에서 기본심리욕구 전체 및 하위변인

은 안녕감 전체 및 하위변인 모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p < .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재적 생애목표는 안녕감 전체 및 하위변인 모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내재적 생애목표와 정서적 안녕감, 외재적 생애목표와 자율성 간 상관의 정도가 남·여학생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 집단의 경우 내재적 생애목표와 정서적 안녕감($r = .13, p > .05$)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없었으나 여학생 집단의 경우($r = .15, p < .01$)에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외재적 생애목표와 자율성의 관계에서는 남학생 집단의 경우($r = .15, p < .05$)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여학생 집단의 경우 상관($r = .03, p > .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재적 생애목표와 정서적 안녕감 사이에서는 여학생의 상관관계 강도가 높고, 외재적 생애목표와 자율성 사이에서는 남학생의 상관관계 강도가 높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 성별에 따른 생애목표, 기본심리욕구, 안녕감의 상관(남 n=232, 여 n=186)

	자율	유능	관계	기본 심리	생애 내재	생애 외재	생애 전체	정서	사회	심리	안녕감	여	
												M	SD
자율	1	.39**	.53**	.82**	.28**	.03	.17*	.42**	.37**	.31**	.42**	27.51	5.37
유능	.39**	1	.53**	.77**	.54**	.32**	.48**	.28**	.35**	.40**	.40**	25.58	4.44
관계	.45**	.44**	1	.83**	.42**	.18*	.33**	.46**	.43**	.51**	.54**	29.12	4.24
기본심리	.79**	.76**	.81**	1	.50**	.20**	.39**	.48**	.47**	.49**	.56**	82.48	11.36
생애내재	.25**	.39**	.32**	.41**	1	.53**	.85**	.15**	.36**	.29**	.27**	63.01	7.23
생애외재	.15*	.28**	.19**	.26**	.56**	1	.90**	-.01	.07	.12	.08	58.19	8.68
생애전체	.22**	.37**	.28**	.37**	.85**	.92**	1	.07	.18*	.22**	.19**	121.19	13.94
정서	.42**	.27**	.49**	.52**	.13	.05	.09	1	.68*	.49**	.81**	14.22	3.26
사회	.41**	.46**	.50**	.58**	.26**	.10	.19**	.59**	1	.64**	.93**	20.29	5.27
심리	.35**	.52**	.52**	.59**	.31**	.10	.22**	.53**	.67**	1	.83**	17.20	4.04
안녕감 전체	.46**	.50**	.59**	.66**	.28**	.10	.20**	.78**	.92**	.86**	1	51.72	10.86
M	27.48	25.06	27.78	80.31	63.02	56.23	119.25	14.62	20.44	16.89	51.95		
SD	4.62	4.35	4.66	10.72	7.90	10.37	16.19	3.13	5.12	3.98	10.56		

*p<.05, **p<.01; 대각선 왼쪽 아래는 남학생, 대각선 오른쪽 위는 여학생의 상관행렬

생애목표, 기본심리욕구, 안녕감 간의 구조모형 분석

측정모형 검증

측정모형을 검증한 결과 $\chi^2=148.273$ ($df=50$), $p<.001$, CFI는 .963, TLI는 .942, RMSEA는 .069 등으로 모형 평가 기준을 만족함으로써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 2에 제시된 것처럼,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은 .664~.963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001 유의도 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연구의 자료를 잘 설명하도록 적합하게 설계되었다고 판단되며, 구체적인 적합도 지수는 표 3과 같다.

구조모형 검증

연구모형의 검증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는데, $\chi^2=165.418$ ($df=54$)으로 $p<.001$ 이고 기타 적합도 지수는 모형 평가기준(CFI(>.90), TLI(>.90), RMSEA(<.08))을 만족시킴으로써, 연구모형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모형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계수가 파악됨으로써, 본 연구 자료를 보다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항의 내용 및 수정지수 등을 참고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 연구모형에 대한 수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재적 생애목표와 안녕감, 외재적 생애목표와 유능감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이들 경로를 삭제하였다. 또한 수정지수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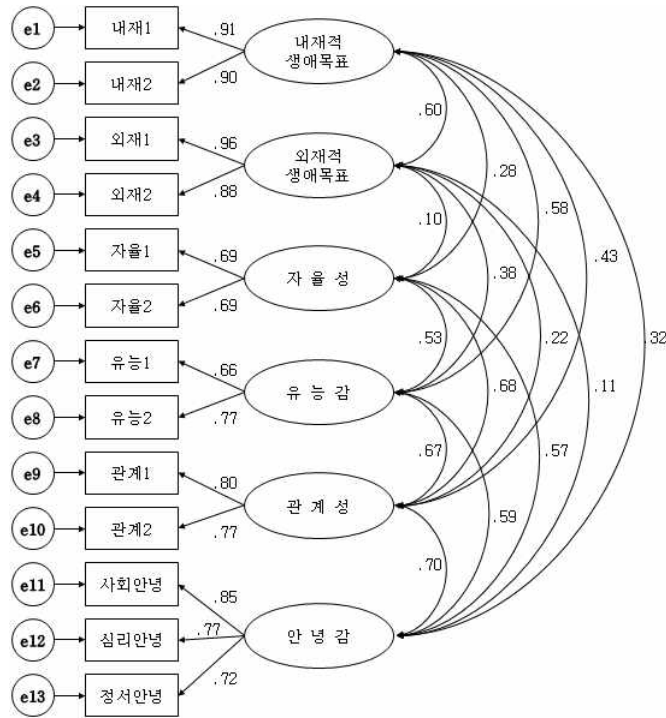


그림 2. 생애목표, 기본심리욕구, 안녕감의 측정모형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CFI	TLI	RMSEA (90% 신뢰구간)
측정모형	148.273***	50	.963	.942	.069 (.056~.082)

*** $p < .001$

표 4.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비교

모형	χ^2	df	CFI	TLI	RMSEA (90% 신뢰구간)	$\Delta\chi^2(\Delta df)$
연구모형	165.418***	54	.958	.939	.070 (.058~.083)	11.555(1)***
수정모형	153.863***	55	.963	.947	.066 (.053~.078)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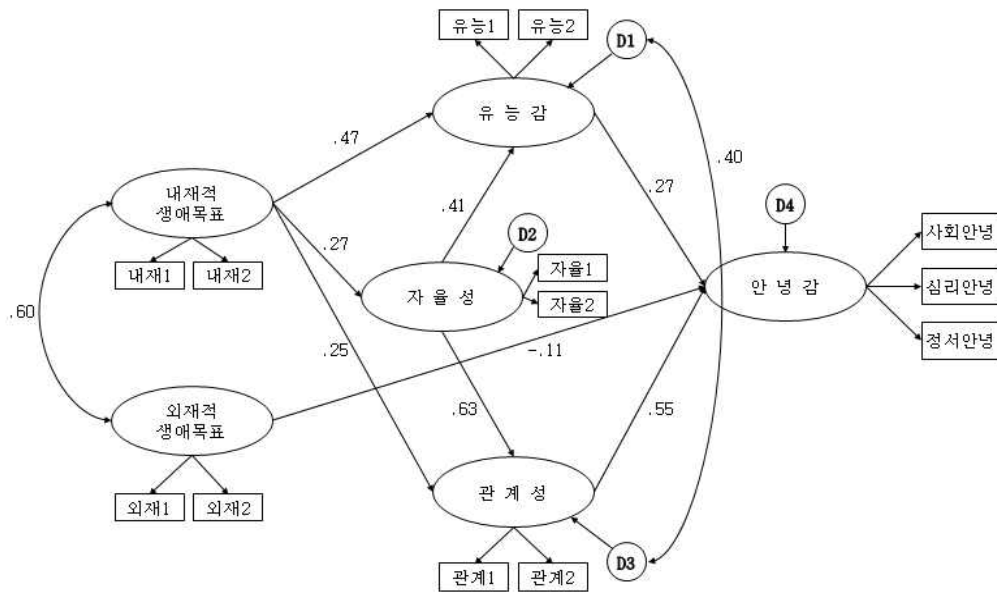


그림 3. 생애목표, 기본심리욕구, 안녕감 간의 관계(수정 모형)

문항 내용을 토대로 유능감과 관계성 간의 설명 오차 상관을 설정하였다. 위의 방법으로 연구모형을 수정한 결과 연구모형 보다는 수정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그림 3과 같이 모형을 수정하였다.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차이검증 및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χ^2 차이검증 결과, $\Delta\chi^2=11.555$ 는 유의 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두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연구모형의 CFI는 .958, TLI는 .939, RMSEA는 .070으로, 수정모형의 CFI는 .963, TLI는 .947, RMSEA는 .066으로 수정모형의 적합도가 연구모형에 비해 다소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χ^2 검증과 기타 적합도 지수 및 경로 간 설명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구모형 보다는 수정모형이 본 연구 자료에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직접 효과 검증

최종 선정된 모형 안에서 변인 간 직접 경로계수의 유의도 검증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 내 포함된 모든 직접 경로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재적 생애목표는 자율성($\beta=.275$, $t=4.211$, $p<.001$), 유능감($\beta=.582$, $t=7.790$, $p<.001$), 관계성($\beta=.424$, $t=4.475$,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재적 생애목표는 안녕감($\beta=-.112$, $t=-2.281$, $p<.05$)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심리욕구의 하위 요인 중 자율성은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유능감($\beta=.412$, $t=5.512$, $p<.001$), 관계성($\beta=.629$, $t=7.549$, $p<.001$)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유능감($\beta=.271$, $t=2.941$, $p<.01$)과 관계성($\beta=.548$, $t=6.165$, $p<.001$)은 안녕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재적 생

표 5. 직접 효과 검증

경로	B	SE	β	t
내재적 생애목표 → 자율성	.171	.041	.275	4.211 ^{***}
내재적 생애목표 → 유능감	.257	.033	.582	7.790 ^{***}
내재적 생애목표 → 관계성	.137	.031	.424	4.475 ^{***}
외재적 생애목표 → 안녕감	-.098	.043	-.112	-2.281 [*]
자율성 → 유능감	.363	.066	.412	5.512 ^{***}
자율성 → 관계성	.550	.073	.629	7.549 ^{***}
유능감 → 안녕감	.602	.205	.271	2.941 ^{**}
관계성 → 안녕감	1.226	.199	.548	6.165 ^{***}

*** $p < .001$, ** $p < .01$, * $p < .05$

애목표를 가질수록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충족되고 이것이 안녕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외재적 생애목표를 가질 경우 기본심리욕구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지만, 상대적으로 안녕감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 효과 검증

최종모형에서 변인 간 총 효과를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제시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있다. 내재적 생애목표가 유능감과 관계성을 매개로 안녕감에 미치는 간접효과($\beta = .390, p < .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율성과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도 유능감과 관계성의 간접효과($\beta = .456, p < .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변인 간 효과 분해표

설명변인	결과변인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SMC
내재적 생애목표	자율성	.275 ^{***}	.275 ^{***}		.076
	유능감	.582 ^{***}	.469 ^{***}	.113 ^{***}	.496
	관계성	.424 ^{***}	.251 ^{***}	.173 ^{***}	.545
자율성	유능감	.412 ^{***}	.412 ^{***}		.496
	관계성	.629 ^{***}	.629 ^{***}		.545
	안녕감	.456 ^{***}	-	.456 ^{**}	.534
유능감		.271 ^{**}	.271 ^{**}		
관계성	안녕감	.548 ^{***}	.548 ^{***}		.534
내재적 생애목표		.390 ^{***}	-	.390 ^{***}	

*** $p < .001$, ** $p < .01$; 붓스트래핑 기법에 의한 검증 결과;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R²)

성별에 따른 내·외재적 생애목표, 기본심리 욕구, 안녕감 간의 관계

잠재평균 분석

내·외재적 생애목표, 기본심리욕구, 안녕감 수준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잠재평균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집단 간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형태동

일성 → 측정동일성 → 절편동일성 → 절편 동일성 → 요인분산 동일성을 순차적으로 검증하였다. 동일성 검증방법으로는 값 차이 ($\Delta\chi^2$)의 유의성 여부 및 모형의 적합도 지수의 변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하였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검증결과, 표 7과 같이 형태동일성과 측정 동일성은 확보되었으나, 절편동일성 모형은

표 7. 동일성 검증에 대한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χ^2	df	CFI	TLI	RMSEA	$\Delta\chi^2(\Delta df)$
모형 1: 형태동일성	204.034 ^{***}	100	.961	.939	.050 (.040~.060)	-
모형 2: 측정동일성	213.731 ^{***}	107	.960	.942	.049 (.039~.058)	9.697(7) (모형2 vs 모형1)
모형 3: 절편동일성	280.536 ^{***}	120	.940	.922	.057 (.048~.065)	66.805(13) ^{***} (모형3 vs 모형2)
모형 4: 부분 절편 동일성	241.830 ^{***}	118	.954	.939	.050 (.041~.059)	28.099(11) ^{**} (모형4 vs 모형2)
모형 5: 부분 요인분산 동일성	263.723 ^{***}	124	.948	.934	.052 (.043~.061)	21.893(6) ^{**} (모형5 vs 모형4)

*** $p < .001$, ** $p < .01$, * $p < .05$

표 8. 성별에 따른 잠재평균 차이 분석

잠재변인	성별		효과크기(d)
	남학생	여학생	
내재적 생애목표	-.265	0	-.02
외재적 생애목표	-.898	0	-.04
자율성	-.211	0	-.04
유능감	-.443	0	-.11
관계성	-.188	0	-.05
안녕감	.111	0	.01

*** $p < .001$

기각되었다($\Delta = 66.805(\Delta df=13)$, $\Delta TLI = -.020$, $\Delta RMSEA = .008$). 따라서 수정지수를 고려하여 특정 절편(관계성2)에 가해진 동일화 제약을 해제한 부분절편동일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χ^2 검증은 기각되었으나 TLI 및 RMSEA 등이 모형 간 미미한 차이($\Delta TLI = -.003$, $\Delta RMSEA = .001$)를 보임으로써, 부분절편 동일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끝으로 부분 요인분산 동일성을 검증한 결과 χ^2 검증은 기각되었으나 TLI, RMSEA 값에서 미미한 차이($\Delta TLI = -.005$, $\Delta RMSEA = .002$)를 보임으로써, 요인분산 동일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어서 각 집단별 잠재평균을

검증하였고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잠재평균 분석에서는 각 집단의 잠재평균 차이가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크기(Cohen's d)를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 간 잠재평균의 차이에서 내재적 생애목표, 외재적 생애목표, 자율성, 관계성, 안녕감 모두에서 낮은 효과크기($d = -.11 \sim .01$)를 나타냈다.

경로계수 동일성 검증

성별에 따른 평균 구조의 차이 검증과 더불어 본 연구의 최종모형이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

표 9. 측정 동일성 및 집단 간 등가제약모형의 적합도 비교

모형		df	CFI	TLI	RMSEA (90% 신뢰구간)
측정동일성 제약모형	221.469***	117	.961	.948	.046 (.037~.056)
집단 간 등가제약모형	238.776***	125	.957	.947	.047 (.038~.056)

*** $p < .001$

표 10. 집단별 표준화된 경로계수(측정 동일성 제약 모형)

모수	남학생	여학생
내재적 생애목표 → 자율성	.274**	.283**
내재적 생애목표 → 유능감	.384***	.612***
내재적 생애목표 → 관계성	.193*	.357***
외재적 생애목표 → 안녕감	-.133*	-.083
자율성 → 유능감	.517***	.318***
자율성 → 관계성	.638***	.612***
유능감 → 안녕감	.469***	.013
관계성 → 안녕감	.448***	.698***

*** $p < .001$, ** $p < .01$, * $p < .05$

다. 즉, 남학생과 여학생 간 최종모형의 경로 계수를 비교하기 위한 측정동일성 제약모형과 집단 간 등가제약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고, 두 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표 9 참고). 두 모형 간 χ^2 검증 결과는 $\Delta\chi^2 = 17.307$ 으로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성별에 따른 경로계수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차이를 가져온 구체적 경로를 확인하고자 경로계수별 동일성 제약 모형과 기저모형과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따라서 측정 동일성 제약 모형에서의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의 경로계수(표 10)를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 모두에서 내재적 생애목표가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율성이 유능감, 관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재적인 생애목표의 영향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남학생의 경우 외재적 생애목표가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여학생의 경우 영향이 없었다. 그리고 남학생의 경우 자율성

이 유능감, 관계성을 매개로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여학생의 경우 유능감이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각 집단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경로계수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모형 내에 존재하는 8개의 경로계수에 각각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8개를 기저모형(측정 동일성 제약 모형)과 비교하였고,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구체적으로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경로는 내재적 생애목표 → 유능감, 자율성 → 유능감, 자율성 → 관계성, 유능감 → 안녕감 등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의 내·외재적 생애목표, 기본심리욕구, 안녕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초등학생의 내·외재적 생애목표가 기본심리욕구를 통하여 안녕

표 11. 경로계수별 동일성 제약 모형과 기저모형과의 차이 검증 결과

경로	Δdf	Δ	ΔTLI	ΔCFI	$\Delta RMSEA$
내재적 생애목표 → 자율성	1	1.000	.000	.000	.000
내재적 생애목표 → 유능감	1	6.394*	-.002	-.005	.001
내재적 생애목표 → 관계성	1	1.712	.000	.000	.000
외재적 생애목표 → 안녕감	1	.065	.001	.000	.000
자율성 → 유능감	1	4.208*	-.001	-.001	.001
자율성 → 관계성	1	5.162*	-.002	-.002	.001
유능감 → 안녕감	1	5.497*	-.002	-.002	.001
관계성 → 안녕감	1	3.373	-.001	-.001	.001
모든 경로에 동일화 제약	8	17.307*	-.001	-.004	.001

* $p < .05$; 기저모형 = 측정동일성 제약모형

감에 차별적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생의 기본심리욕구와 안녕감에 미치는 전 생애 관점에서의 목표 수립이 교육현장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에 대하여 논의를 추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내·외재적 생애목표, 기본심리욕구, 안녕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내·외재적 생애목표와 기본심리욕구의 상관을 비교해 볼 때, 내재적 생애목표에 비하여 외재적 생애목표는 기본심리욕구와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외재적 생애목표는 기본심리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기본심리욕구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Eigner, 2001; Heady, 2008; Kasser, Ryan, 1993, 1996)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내·외재적 생애목표와 안녕감의 상관에서는 남학생 집단에서 내재적 생애목표는 사회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 보다 경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래 집단 내에서도 경쟁적인 환경이 조성되기 쉬워 내재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남들과의 비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불안, 스트레스로 정서적인 안녕감이 높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여학생 집단에서는 내재적 생애목표와 안녕감 하위요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외재적 생애목표가 안녕감을 낮춘다는 연구(Cohen & Cohen, 1996; Heady, 2008; Kasser & Ryan, 1993, 1996)와 동일하게 남·여 집단 공통적으로 외재적 생애목표와 안녕감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기본심리욕구와 안녕감은 유의하게

높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 중 관계성은 안녕감의 하위요인 모두와 높은 상관을 나타냈으나 자율성은 심리적 안녕감과, 유능감은 정서적 안녕감과 상관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각 변인 간 상관관계의 결과를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내재적인 생애목표에 대한 추구는 기본심리욕구 충족과 안녕감 증진에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외재적 생애목표에 대한 추구는 기본심리욕구 충족 및 안녕감 증진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파악되지 못하였는데, 이는 학생들이 보다 적응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 데에는 외재적 생애목표의 추구보다는 내재적 생애목표의 추구가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둘째, 내·외재적 생애목표가 기본심리욕구를 통하여 안녕감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내재적 생애목표는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매개하여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외재적 생애목표는 유능감에는 정적인 영향을, 안녕감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정하였다(Kasser & Ryan, 1993, 1996; Rijavec et al., 2006; Sheldon et al., 2004). 그리고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 중 자율성이 유능감과 관계성에 선행한다는 선행연구(김은주, 2007; deChams, 1968; Ryan & Deci, 2000; Guay, Ratelle, Senecal, Larose, & Deschenes, 2006)를 근거로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연속적인 구조로 설정한 후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경로계수의 유의성, 모형의 적합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모형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내재적 생애목표는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로 안녕감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재적 생애목표는 기본심리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안녕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재적인 생애목표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내재적 생애목표 기본심리욕구를 충족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외재적 생애목표가 기본심리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안녕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Cohen et al., 1996; Gunnell et al., 2014; Heady, 2008; Kasser & Ryan, 1993, 1996, Rijavec et al., 2006)를 지지한다. 결과적으로 내재적 생애목표를 가지는 것이 현재 생활의 기본심리욕구를 충족하고 이는 안녕감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내재적 생애목표를 추구하는 경우 개인적인 성장, 타인과의 관계, 봉사활동 등을 중요하게 여기므로 늘 현재의 관점에서 자신을 파악하고 행동할 수 있지만, 외재적 생애목표를 추구하는 경우 끊임없이 미래의 자신의 모습 또는 남들의 모습과 현재의 자신을 비교하게 되어 늘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므로 욕구 충족은 물론 안녕감 증진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학교현장에서도 학생들이 부나 명성, 이미지를 추구하는 외재적인 목표를 수립하기 보다는 개인을 성장시키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내재적 생애목표를 가지도록 지지해 줌으로써 현재 생활에서의 기본 심리적 욕구를 충족하고 긍정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성별에 따라 내·외재적 생애목표, 기본심리욕구, 안녕감 간의 구조적인 관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한 결과 성별에 따라 구조모형에 차이가 나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 집단의 경우 내재적 생애목표가 유능

감, 관계성을 매개로 안녕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외재적 생애목표는 안녕감을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여학생 집단의 경우 유능감에서 안녕감, 외재적 생애목표에서 안녕감의 직접경로가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에게는 남들과의 비교나 자신의 능력향상에 대한 인식을 통한 유능감의 확보가 개인의 행복 증진에 중요한 요인이 아님을 시사한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 경쟁적 상황 즉, 외부로부터의 통제 상황에 더 유연하게 대처하여 외재적인 목표를 추구하거나 외재적인 목표를 가져야하는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안녕감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여학생의 내재적인 생애목표와 관계성 수준이 남학생에 비해 높다는 선행 연구결과(Deci & Ryan, 2002; Kasser & Ryan, 1993, 1996; Rijavec et al., 2006)로 미루어 볼 때 여학생의 경우 외재적인 생애목표를 추구하는 상황에서도 내재적인 생애목표나 관계성이 높기 때문에 외재적 생애목표의 부정적인 영향이 상쇄된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남학생 집단에 비해 관계성이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는 차이점을 살펴봤을 때 여학생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주위 친구들보다 비교 우위에 서는 것 보다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 욕구가 강하며 이를 통해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위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남·여 학생 모두에 있어 내재적인 생애목표는 기본심리욕구를 충족하고 이를 통해 안녕감을 증진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안녕감 증진을 위해서는 교육현장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내재적 생애목표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D시 3개 초등학교의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표집을 실시하여 조사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표집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생애목표 척도를 최영미(2013)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검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는데, 초등학생들이 자신이 실제로 추구하는 목표에 대해 응답하였을 수도 있지만 좋아 보이고 옳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선택하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생애목표, 미래목표 등의 여러 미래지향적 척도들을 종합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애목표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여 진행한다면 보다 심도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 판단된다. 셋째, 자기결정성이론에 새롭게 추가된 목표내용이론은 기본심리욕구가 내·외재적 생애목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로 출발하여 최근에는 내·외재적 생애목표 또한 기본심리욕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는 물론 국내에도 이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생애목표, 미래목표, 미래지향적 목표 등으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미래지향적 목표들을 통합하고 초등학생의 생애목표를 명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연령에 맞는 생애목표 발달 단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내·외재적 생애목표를 구분하여 기본심리욕구, 안녕감과 구조적인 관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내·외재적 생애목표가 혼재되어 나타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인중심 접근법을 사용하여 내·외재적 생애목표에 관한 중다적 목표의 선택과 관련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고재홍, 김미정 (2009).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방어기제들의 역할. *초등교육연구*, 22(4), 161-183.
- 교육부 (2012). *한국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교육부
- 김성수 (2013). SDT의 목표내용이론에 기반한 청소년용 생애목표 척도 개발 및 타당화.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아영 (2010). 자기결정성이론과 현장 적용 연구. *교육심리연구*, 24(3), 583-609
- 김아영, 이명희 (2008). 청소년의 심리적 욕구 만족, 우울경향,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구조와 학교급간 차이. *교육심리연구*, 22(2), 423-441.
- 김은주 (2007). 부모-자녀관계와 자기결정성 요인들이 대학 신입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1(3), 539-555.
- 김의철, 박영신 (2004). 청소년과 성인의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4), 973-1002.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 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주환, 김은주, 홍세희 (2006). 한국 남녀 중학생 집단에서 자기결정성이 학업성취도에 주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0(1), 243-264.
- 류정희, 이명자 (2007). 청소년의 심리적, 사회적 안녕감: 그 구조 및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4(1), 55-77.
- 문은식 (2007). 중학생의 심리적 안녕에 관련

- 되는 사회, 동기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교육심리연구*, 21(2), 459-475.
- 박영아 (2011). 스트레스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초등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2(3), 107-120.
- 소연희 (2007). 학습자 동기 특성 변인들이 고등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성취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및 학업성취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21(4), 1007-1028.
- 신 미, 전성희, 유미숙 (2010). 청소년의 삶의 만족과 안녕에 관한 요인 연구. *청소년학연구*, 17(9), 131-150.
- 신중호, 서은진, 이유경 (2011). 생애목표검사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5(2), 255-276.
- 안도희, 박귀화, 정재우 (2008). 자율성 지지, 기본적 욕구 및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5(5), 315-338
- 이명희, 김아영 (2008).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 심리 욕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157-174.
- 이현주, 이미나, 최인수 (2008). 한국 청소년 안녕감 척도(K-WBSA)의 타당화 및 삶의 질 분석. *한국교육심리학회*, 22(1), 301-315.
- 조한익 (2011). 초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지지, 희망, 우울증 및 학업성취도의 구조적 관계분석. *교육심리연구*, 25(1), 153-174.
- 최영미 (2013). 대학생의 미래지향목표, 근접하위목표, 과제도구성지각 및 자기조절전략간의 구조적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인화, 임경희, 박미진 (2012). 초등학생의 진로인식, 진로포부 및 직업포부유형 간의 관계. *초등상담연구*, 11(2), 261-278.
- Brdar, I., Miljković, D., & Rijavec, M. (2011). Aspirations and Well-Being: Extrinsic vs. Intrinsic Life Goals. *Social Research-Journal for General Social Issues*, 3, 693-710.
- Cohen, P., & Cohen, J. (1996). *Life values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Damon, W., Menon, J., & Cotton Bronk, K. (2003). The Development of Purpose During Adolescence.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7, 119-128.
- DeChamps, R. (1968). *Personal causation: The internal affective determinants of behavior*. New York: Academic Press.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 227-268.
- Diener, E., Suh, E.,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Diener, E., & Fujita, F. (1995). Resources, personal strivings, and subjective well-being: A nomothetic and idiographic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926.
- Eigner, S.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protecting the environment” as a dominant life goal and subjective well-being. In Schmuck, P., & Sheldon, K. (Eds.), *Life Goals and Well-being*. Gottingen: Hogrefe.
- Emmons, R. A. (1996). Striving and feeling: Personal goals and subjective well-being. In P.

- M. Gollwitzer & J. A. Bargh (Eds.), *The psychology of action: Linking cognition and motivation to behavior*. New York: Guilford.
- Ginzberg, E. (1972). Toward a Theory of Occupational Choice: A Restatement.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20(3), 2-9.
- Gunnell, K. E., Crocker, P. R. E., Mack, D. E., Wilson, P. M., & Zumbo, B. D. (2014). Goal contents, motivation,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well-being and physical activity: A test of Self-Determination Theory over 6 months. *Psychology of Sport & Exercise*, 15(1), 19-29.
- Guay, F., Ratelle, C. F. Senecal, C., Larose, S., & Deschenes, A. (2006). Distinguishing Developmental From Chronic Career Indecision: Self-Efficacy, Autonomy,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4, 235-251.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6th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Heady, B. W. (2008). Life goals matter to happiness: A revision of set-point theory. *Social Indicators Research*, 86, 213-231.
- Kasser, T., & Ryan, R. M. (1993). A dark side of the American dream: Correlates of financial success as a central life aspi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410-422.
- Kasser, T., & Ryan, R. M. (1996). Further examining the American dream: Differential correlates of intrinsic and extrinsic go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 280-287.
- Kasser, T., & Ryan, R. M. (2004). Aspirations Index. Retrieved September 30, 2004, from the University of Rochester Self-Determination Theory website at http://www.psych.rochester.edu/SDT/measures/aspir_scl.html
- Keyes, C. L. M. (2005). The subjective well-being of America's youth: Toward a comprehensive assessment. *Adolescent and Family Health*, 4, 1-32.
- Lyubomirsky, S. Sheldon, K. M., & Schkade, D. (2005). Pursuing Happiness: The Architecture of Sustainable Change.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9, 111-131.
- Rijavec, M., Brdar, I., & Miljković, D. (2006). Extrinsic vs. Intrinsic life goals, psychological needs and life satisfaction. In: A. Delle Fave (Eds.), *Dimensions of well-being. Research and intervention*, Milano, Franco Angeli.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8-78.
- Ryff, C. D. & Keyes, C. L.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719-727.
- Sheldon, K. M., Ryan, R. M., Deci, E. L., & Kasser, T. (2004). The independent effects of goal contents and motives on well-being: It's both what you pursue and why you pursue i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 475-486.
- Vallerand, R. J. (1997). Toward a hierarchical model of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In M. P. Zanna(Ed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9, 271-360.
Yang, Y. (2008). Social Inequalities in happiness in the U.S. 1972-2004: An Age-Period-cohort Analy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3(2), 204-226.

원 고 접 수 일 : 2014. 06. 22.

수정원고접수일 : 2014. 07. 19.

최종게재결정일 : 2014. 07. 22.

Relationships of primary school students' intrinsic and extrinsic life goals with their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well-being

Hyunjong Noh

Wonsook Soh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ept. of Education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rimary school students' life goals on their well-being mediated by their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to evaluate consistency of their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these variables across gender group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18 5th or 6th graders(232 male and 186 female students) who were selected from three primary schools located in D-City. The proposed model was evaluated for its validity through SEM analyses. As a result, it was observed that primary students' intrinsic and extrinsic life goals had differential effects on their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well-being. The intrinsic life goals showed only indirect effects on well being through mediation of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whereas the extrinsic life goals had only direct effects on it.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multiple-group SEM analyses showed that intrinsic life goals had positive direct effects on three kinds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for both gender groups. However, extrinsic life goals had significant direct effects on well-being only for the male group. Finally, importances of establishing and pursuing intrinsic life goals for primary school students are discussed.

Key words : *Intrinsic life goals, Extrinsic life goals, Basic psychological needs, Well-being*